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4.(화) 10:00
(지 면) 2026. 11. 24.(화) 석간

한·중 지방행정 교류, 정책공유로 내실 다진다

- 행정안전부-민정부, 11월 24일(화), 베이징에서 '제15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개최
- 기부·자선 등 주요 정책 경험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4일(화) 베이징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5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세미나를 통해 6년 만에 대면 교류를 재개*하였다.

* 코로나19로 '20~'22년 영상회의 대체, '23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5년 대면회의 재개

< 제15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26. 11. 24.(화) ~ 11. 27.(금) / 베이징·충칭
■ (회의주재) 韓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中 민정부 정책법규사 사장
■ (주요내용)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합동 정책세미나, 간담회, 정책 현장방문 등

특히 지난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인적·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지방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부·자선 등 주제로 주요 정책 경험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이번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기부·자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기부 주요 정책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사용 관리, 기부 참여 기반 확대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과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민정부는 자선사업, 사회조직 관리, 자원봉사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양 기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중 양국의 기부 및 자선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사례와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사례 등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계·통합 정책 및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국가이자 지리적·역사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협력 관계를 지방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교류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기부·자선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 분야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서로의 정책 사례와 제도 발전 경험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김대영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박범호 (044-205-31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